



環境保全教育을 위한 우리나라 大學生의

環境保全意識研究



백상현 /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단계아파트 7동 501호

한 생태계에 대하여 가하여지고 이에 의하여 생태계는 변화하고 있다. 또한 계속적인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연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며, 개발사업의 증가는 생태계의 교란을 더욱 더 초래하게 됐다. 따라서 오늘날의 심각한 환경오염은 인간과 자연사이의 조화에 관한 원리를 실천하지 못함에서 기인된 것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전세계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본 고(稿)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오염문제 및 개발과 생태계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고, 생태계의 기본지식을 측정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관념을 발굴, 이에 대한 대처방안 연구와 효율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조사방법

조사방법으로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대상은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학생을 대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한 전체 응답자 수는 총 588명으로 서울대학교 학생 182명, 충남대학교 학생

I. 서 론

1. 본고(本稿)의 목적

환경과의 능동적, 수동적인 상호작용하에 생존하는 인간에 있어서의 자연이란 의미는 무엇일까? 인간이 자연과 대립하는 것으로서 자연을 인식했을 때 그 인식된 자연의 현존상태는 긴 세월을 걸친 인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한 것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현대화의 물결은 필연코 개발과 공업화란 연속적인 과정을 밟게 되었다. 도시개발, 공단개발을 위시하여 항만도로, 농축업 등의 각종 개발사업은 대소의 다양

207명, 전북대학교 학생 19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공별 응답자 수의 분포는 인문사회계열이 307명, 자연계열 학생이 231명으로 예체능계열은 설문조사에서 제외시켰다. 각 대학별 응답자 수가 다른 것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설문지 훼손과 분실 등으로 인한 것이다. 각 대학별 응답자 수의 차이는 커다란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였다.

조사 시기는 서울대학교가 1987년 7월 8일에서 9일 사이, 충남대학교가 7월 10일에서 11일, 전북대학교가 7월 15일에서 16일 사이에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 진행자는 각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의뢰하였으며, 조사장소와 조사시간에 있어서는 설문조사 진행자들에게 설문조사 실시의 과정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였다.

II. 결 과

1.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인식도

본 항에서 조사 하고자 하는 바는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의 형성에는 어떠한 경로로 인하여 환경오염문제를 접하느냐가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표 1-1>의 조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표 1-1> 환경오염문제를 주로 접하는 계기는 무엇을 통해서 입니까?

	단위% (응답자수)		
	인문사회계열 (357)	자연계열 (231)	전 체 (588)
일 간 지	18.8 (67)	15.6 (36)	17.5(103)
전파매체 (라디오, TV)	48.2(172)	41.1 (95)	45.4(267)
잡지나 서적	12.9 (46)	12.1 (28)	12.6 (74)
직접목격 경험	13.7 (49)	26.4 (61)	18.7(110)
타인으로 부터 들어서	5.0 (18)	9.5 (22)	6.8 (40)
해당사항 없음	1.4 (5)	4.3 (10)	2.6 (15)

수 있는데, 조사결과 45.4%가 라디오나 TV와 같은 전파매체를 통하여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접목격 경험 18.7%, 일간지 17.5%, 잡지나 서적 12.6% 등에 비하여 높

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전파매체가 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접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정도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그 정도를 결정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표 1-2>, <표 1-3>, <표 1-4>는 이러한 의도에서 조사하게 되었다.

<표 1-2>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실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단위% (응답자수)		
	인문사회계열 (357)	자연계열 (231)	전 체 (588)
매우 심각하다.	41.2(147)	35.9 (83)	39.1(230)
다소 심각하다.	52.9(189)	58.9(136)	55.3(325)
보 통 이 다.	5.3 (19)	4.8 (11)	5.1 (30)
양 호 하 다.	0.56(2)	0.43 (1)	0.51 (3)

<표 1-3> 현재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 실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응답자수)		
	인문사회계열 (357)	자연계열 (231)	전 체 (588)
매우 잘 되고 있다.	0.28 (1)	0.87 (2)	0.51 (3)
잘 되고 있는 편이다.	1.12 (4)	2.6 (6)	1.7 (10)
보 통 이 다.	12.9 (46)	15.2 (35)	13.8 (81)
잘 안되는 편이다.	61.9(221)	58.9 (136)	60.7 (357)
매우 잘 안되고 있다.	23.8 (85)	22.5 (52)	23.3 (137)

<표 1-4> 현재의 환경의 질은 과거와 비교해서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응답자수)		
	인문사회계열 (357)	자연계열 (231)	전 체 (588)
과거보다 매우 향상되었다.	1.68 (6)	1.3 (3)	1.5 (9)
과거보다 다소 향상되었다.	16.5 (59)	9.96 (23)	13.9 (82)
과거와 변함이 없다.	17.6 (63)	12.6 (29)	15.6 (92)
과거보다 다소 저하되었다.	35.9 (128)	49.4(114)	41.2(242)
과거보다 매우 저하되었다.	28.3 (101)	26.8 (62)	27.7(163)

<표 1-2>의 결과는 55.3%가 다소 심각하다고 답변 하였으며 39.1%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의 94.4%가 심각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의 현재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보전 실태는 전체의 60.7%가 잘 안되는 편이라고 답변 하였으며 전체의 23.3%가 매우 잘 안

되고 있다고 답변 하였다.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환경의 질의 변화를 묻은 <표 1-4>의 경우 전체의 41.2%가 과거보다 다소 저하되었다고 답변 하였으며, 전체의 27.7%가 과거보다 매우 저하되었다고 답변 하였다. <표 1-2>, <표 1-3>, <표 1-4>에서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의 문제인식 경향이 모두 비슷하게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국가의 환경정책에 대한 신임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5>에서 제시해 놓은 바와 같이 전체의 53.4%가 낮은 편이라고 응답 하였으며 29.9%가 매우 낮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 1-5>의 결과는 <표 1-2>, <표 1-4> <표 1-5> 현재 국가의 환경정책에 대한 귀하의 신임도는 어떠하십니까?

	단위% (응답자수)		
	인문사회계열 (357)	자연계열 (231)	전체 (588)
매단히 높다.	0.28 (1)	0.86 (2)	0.51 (3)
높은 편이다.	0.56 (4)	0.43 (6)	0.51 (10)
보통이다.	11.5 (46)	22.1 (35)	15.6 (81)
낮은 편이다.	58.8 (221)	45.0 (136)	53.4 (357)
매우 낮다.	28.9 (85)	31.6 (52)	29.9 (137)

<표 1-6> 오늘날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의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단위% (응답자수)		
	인문사회계열 (357)	자연계열 (231)	전체 (588)
정 책 가	11.5 (41)	8.7 (20)	10.4 (61)
기 업 가	12.0 (43)	28.6 (66)	18.5(109)
국 민	6.2 (22)	8.2 (19)	7.0 (41)
모두 (정책가,기업가, 국민)	70.3(251)	54.5(126)	64.1(377)

3), <표 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따라서 환경정책을 신임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면 오늘날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한다면 문제의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환경오염 문제의 책임 소재를 묻은 결과는 <표 1-6>과 같이 개별적으로는 정책가(정부) 10.4%,기업가 18.5%, 국민 7.0%로 각각 응답한 것에 반하여 응답자 전체의 64.1%가 정책가, 기업

<표 1-7> 현재의 경향으로 보아 환경오염 문제가 호전될 전망은?

	단위% (응답자수)		
	인문사회계열 (357)	자연계열 (231)	전체 (588)
매우 밝다.	2.5 (9)	6.5 (15)	4.1 (24)
다소 밝다.	44.5(159)	42.4 (98)	43.7(257)
변함없다.	11.5 (41)	11.7 (27)	11.6 (68)
다소 힘들다.	29.7(106)	27.3 (63)	28.7(169)
매우 힘들다.	11.8 (42)	12.1 (28)	11.9 (70)

<표 1-8> 아래의 항목 중에서 귀하가 생각하는 자연의 가치 중 그 가치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항목 둘만 골라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응답자수)		
	인문사회계열 (357)	자연계열 (231)	전체 (588)
정치적 내지 종교적 가치	5.0 (18)	9.5 (22)	6.8 (40)
학술적 내지 교육적 가치	14.6 (52)	20.3 (47)	16.8 (99)
풍경적 가치	0.84 (3)	4.8 (11)	2.4 (14)
테크놀러이선적 가치	8.96(32)	13.4 (31)	10.7 (63)
주거 환경적 가치	76.5(273)	63.6(147)	71.4(420)
국토 보전적 가치	64.7(231)	52.4(121)	59.9(352)
자원적 가치	29.4(105)	35.9 (83)	32.0(188)

가 및 국민 모두를 포괄적으로 한데 묶어 책임이 있다고 답변 함으로써 환경오염문제는 어느 한편이 아닌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다 같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문 사회계열의 12.0%에 비해 자연계열이 28.6%로 기업가에 책임이 있다고 약 2배 정도 응답자 중의 비율이 높았다.

앞으로 환경오염문제가 호전될 전망을 묻은 결과는 <표 1-7>에서와 같이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전체의 43.7%가 다소 밝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소 힘들다 28.7%, 매우 힘들다 11.9%, 변함없다 11.6%, 매우 밝다 4.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표 1-5>에서 국가의 환경정책에 대한 신임도가 낮게 나타난 반면,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는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1-8>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자연의 보존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7개항의 포괄적인 자연의 가치를 나열하고, 그 중 그 가치성이 우선적으로 크다고 생각하는 항목 2개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거환경

적 가치와 국토보전적 가치에 각각 전체의 71.4%와 59.9%가 그 중요도를 우선적으로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전체의 32.0%가 자원적가치에 그 중요도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이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환경오염문제를 주로 TV나 라디오와 같은 전자매체를 통하여 가장 많이 접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문제가 현재 심각하고 환경의 질이 과거보다 저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그 신임도가 현재는 낮지만 앞으로 환경오염문제가 호전될 것으로 믿는 경향이 악화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남으로써 앞으로의 국가환경정책에 기대와 협력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환경오염문제의 책임소재를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연을 보존해야 할 가치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국토 보전적 측면에서 그 가치성을 두고 자원적 가치도 비교적 높게 고려하는 편이었다.

2. 개발과 생태계에 대한 인식도

본 항에서는 생태계의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표 2-1> 자연생태계가 인공생태계로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되어진 생태계)로 대체될 경우 인공 생태계가 자연 그대로 방치된 생태계 보다 안정되어 있다.

단위%(옳다고 응답한 응답자수)

인문사회계열 (357)	자연계열 (231)	전 체 (588)
19.0(68)	27.7(64)	22.4(132)

<표 2-2> 논, 밭과 같은 인공생태계는 갈대밭과 같은 자연생태계 보다 더 안정되어 있다.

단위%(옳다고 응답한 응답자수)

인문사회계열 (357)	자연계열 (231)	전 체 (588)
29.1(104)	17.3(40)	24.5(144)

지식을 측정하고 생태계의 보전과 개발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12개 항의 문항들을 나열하고 그 중 옳다고 생각하는 문항에는 "○"표를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2-1>에서 <표 2-12>까지에 나타나 있다.

<표 2-3> 인간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보다는 인공을 가하여 개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

단위%(옳다고 응답한 응답자수)

인문사회계열 (357)	자연계열 (231)	전 체 (588)
35.9(128)	18.6(43)	29.1(171)

<표 2-4> 식량 증산을 위해 경작 가능한 모든 토지를 농지로 전환 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단위%(옳다고 응답한 응답자수)

인문사회계열 (357)	자연계열 (231)	전 체 (588)
46.2(165)	72.7(168)	56.6(33.3)

<표 2-5> 자연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량의 오염물질은 무시해도 될 경우가 있다.

단위%(옳다고 응답한 응답자수)

인문사회계열 (357)	자연계열 (231)	전 체 (588)
51.5(184)	35.9(83)	45.4(267)

<표 2-6> 생태계의 구성요소 중 어느 한 요소가 파괴되어도 생태계의 복원력이 작용하여 쉽게 회복된다.

단위%(옳다고 응답한 응답자수)

인문사회계열 (357)	자연계열 (231)	전 체 (588)
24.9(87)	25.5(59)	24.8(146)

〈표 2-7〉 국토개발에 의한 자연환경의 파괴는 우리나라 여건으로 보아 아직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단위% (옳다고 응답한 응답자수)

인문사회계열 (357)	자연계열 (231)	전 체 (588)
6.7(24)	8.7(20)	7.5(44)

〈표 2-8〉 자연환경의 개발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단위% (옳다고 응답한 응답자수)

인문사회계열 (357)	자연계열 (231)	전 체 (588)
76.5(273)	63.6(147)	71.4(420)

〈표 2-9〉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개발은 자연환경의 보존보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단위% (옳다고 응답한 응답자수)

인문사회계열 (357)	자연계열 (231)	전 체 (588)
17.1(61)	27.3(63)	21.1(124)

〈표 2-10〉 환경오염문제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단위% (옳다고 응답한 응답자수)

인문사회계열 (357)	자연계열 (231)	전 체 (588)
47.3(169)	29.0(67)	40.1(236)

〈표 2-11〉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일반인들을 계몽하는 것이 오염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보다 더 시급하다.

단위% (옳다고 응답한 응답자수)

인문사회계열 (357)	자연계열 (231)	전 체 (588)
87.4(312)	72.7(168)	81.6(480)

〈표 2-12〉 자연을 정복해 가는 것은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단위% (옳다고 응답한 응답자수)

인문사회계열 (357)	자연계열 (231)	전 체 (588)
29.4(105)	19.0(44)	25.3(149)

〈표 2-1〉에서 〈표 2-4〉까지는 자연생태와 인공생태계의 안정성에 관하여 묻는 같은 내용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2-5〉에서 〈표 2-6〉은 생태계의 기본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잘 모르겠다'와 '옳지않다'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구분하지 않고 옳은 사항에만 "○"표를 하도록 한 것은 같은 내용의 질문들을 여러개 나열함으로써 응답자들의 반응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인공생태계가 자연생태계보다 더 안정되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가 〈표 2-1〉의 경우 자연계열이 27.7%로 인문사회계열의 19.0%보다 높았고, 〈표 2-2〉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이 29.1%로 자연계열의 17.3%보다 높았다. 똑같은 내용의 질문에 전체의 응답율은 〈표 2-1〉이 22.4%, 〈표 2-2〉가 24.5%로 비슷하나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이 대칭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공생태계가 더 안정되어 있다고 그릇되게 응답한 응답자 이외에도 생태계의 안정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다수 있다는 증거이다.

〈표 2-3〉의 경우에는 인공생태계가 인간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바람직하다고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35.9%로 응답한 반면 자연계열의 경우는 18.6%가 되었다.

〈표 2-4〉의 경우 식량증산을 위해 모든 토지를 농지로 전환 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42.6%가 자연계열의 경우 72.7%로 자연계열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하여 훨씬 높은 비율로 답변하였다. 조사 착수전에 자연계열이 인문사회계열보다

높은 비율로 인공생태계의 불안정성을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 하였는데, <표2-1>에서 <표2-3>까지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표2-4>의 경우는 조사 착수전의 예상과 일치했다. 환경의 자정능력을 묻는 <표2-5>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이 자연계열의 35.9%보다 51.5%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의 기본원리를 묻는 <표2-5>의 경우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이 각각 24.9%, 25.5%로 생태계의 한 구성요소가 파괴 되어도 회복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결과적으로 <표2-1>에서 <표2-6>까지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생태계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7>에서 <표2-12>까지는 생태계의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보다는 개발과 생태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다. <표2-7>의 국토개발에 의한 자연환경의 파괴는 우리나라 여건으로 보아 아직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인문사회계열 8.7%로 낮게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국토개발에 의한 자연환경의 파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2-8>의 자연환경의 개발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인문사회계열 76.5% 자연계열 63.6%로 응답하였다. <표2-7>의 의미는 <표2-8>과 상반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표2-8>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은 개발이라는 개념을 호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자연환경의 개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표2-9>의 자연환경의 보존 보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전체의 응답자의 21.1%가 응답한 결과와도 대비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결과들로 보아 생태계 보존과 개발과의 상관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2-10>의 경우처럼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해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인문사회계열이 47.3%로 자연계열의 29.0%보다 높아 인문사회계열이 자

연계열 보다 과학기술의 능력을 크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2-11>에서 처럼, 인문사회계열 87.4%, 자연계열 72.7%로 전체의 81.6%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의 개발보다는 우선적으로 일반인을 계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다같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토 의

지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인간에게 안정된 적합한 환경이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향대로라면 우리 인류는 궁극적으로 파멸에 도달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이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수가 아닌 다수가 인공생태계와 자연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을 알고, 자연환경 요소의 최대한의 보존의 의미를 알고, 사회발전의 척도로서 생활의 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사항들이 환경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稿의 결과로부터 볼 때 현재의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공생태계와 자연생태계의 조화와 균형, 자연환경 요소의 최대한의 보전의 의의에 대하여 그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이들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심어주지 못하고 기존의 환경교육은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사려된다.

참 고 문 헌

1. 권태준, 환경교육의 과제와 기본방향, 환경교육에 관한 심포지엄 보고서, (환경청) 1983.
2. 이정전, 환경문제와 환경교육, 환경논총, (서울대 환경대학원), Vol.12: 65~75 1983.
3. 노용희, 자연이용과 자연보전의 조화방안, 환경논총, (서울대 환경대학원), Vol.9:63~90, 1981.
4. 박준희, 환경교육논고, 환경보전, Vol.1.No.1:83~94, 1980.

효율적인 환경보전 교육의 방향에 관한 설문서

본인은 환경청 원주지청 직원으로서 효율적인 환경보전 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설문을 작성하여 귀하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바쁘신 틈을 할애하시와 다음 문항에 따라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전공분야는?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I. 다음 문항 중 해당사항에 “○” 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학교나 단체)으로 부터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교과과정 포함)
가) 있다. 나) 없다. 다) 기억 하지 못 하겠다.
2. 환경오염문제를 주로 접하는 계기는 무엇을 통해서 입니까?
가) 신문 나) 라디오나 TV 다) 잡지나 서적
라) 직접목적, 경험 마)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바) 해당사항 없음
3.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실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가) 매우 심각하다. 나) 다소 심각하다.
다) 보통이다. 라) 양호하다.
4. 현재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실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 매우 잘 되고 있다. 나) 잘 되고 있는 편이다. 다) 보통이다.
라) 잘 안되는 편이다. 마) 매우 잘 안되고 있다.
5. 현재 국가의 환경정책에 대한 귀하의 신임도는 어떠하십니까?
가) 대단히 높다. 나) 높은 편이다. 다) 보통이다.
라) 낮은 편이다. 마) 매우 낮다.
6. 현재의 환경의 질은 과거와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과거보다 매우 향상되었다. 나) 과거보다 다소 향상되었다.
다) 과거와 변함이 없다. 라) 과거보다 다소 저하되었다.
마) 과거보다 매우 저하되었다.
7. 오늘날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의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정책가 나) 기업가 다) 국민 라) 가, 나, 다항 모두
8. 현재의 경향으로 보아 환경오염문제가 호전될 전망은?
가) 매우 밝다. 나) 다소 밝다. 다) 변함 없다.
라) 다소 힘들다. 마) 매우 힘들다.

II. 아래의 항목 중에서 귀하가 생각하는 자연의 가치 중 그 가치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항목 둘만 골라 “○”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가) 정치적 내지 종교적 가치 | 나) 학술적 내지 교육적 가치 |
| 다) 풍경적 가치 | 라) 레크레이션적 가치 |
| 마) 주거환경적 가치 | 사) 자원적 가치 |
| 바) 국토보전적 가치 | |

Ⅲ. 아래의 사항들 중 귀하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항에만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자연 생태계가 자연 그대로 방치된 생태계보다 안정되어 있다. ()
2. 자연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량의 오염물질은 무시해도 될 경우가 있다. ()
3. 논, 밭과 같은 인공생태계는 갈대밭과 같은 자연생태계 보다 더 안정되어 있다. ()
4. 식량증산을 위해 경작 가능한 모든 토지를 농지로 전환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 바람직 하지 못하다. ()
5. 국토개발에 의한 자연환경의 파괴는 우리나라 여건으로 보아 아직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
6. 자연환경의 개발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7.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하에서의 개발은 자연환경의 보전 보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8. 인간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보다 인공을 가하여 개조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9. 생태계의 구성요소 중 어느 한 요소가 파괴되어도 생태계의 복원력이 작용하여 쉽게 회복된다. ()
10. 환경오염문제는 과학기의 진보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11.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일반인들을 계몽하는 것이 오염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보다 더 시급하다. ()
12. 자연을 정복해 가는 것은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환경오염현장 市民신고 전화번호 안내

여러분 주변에서 하천에 오물을 버린다거나 쓰레기, 기름 등이 흘러가고 있을 때 또는, 하천오염 및 시설물을 훼손할 때에는 다음 전화로 즉시 신고하여 주십시오.

환 경 청 : 422-7623 (서울)
 부산 환경지청 : 334-7606, 332-7607~8
 대구 환경지청 : 93-7652·8176
 광주 환경지청 : 33-6890, 355-2186
 대전 환경지청 : 524-4711~3
 원주 환경지청 : 44-3305
 광주 환경지청 : 23-3171
 제주 출장소 : 23-3171
 서울시청 환경과 : 731-6406~8

서울시청 치수과 : 362-3817~9
 한강관리사업본부 : 796-2236~8
 한강관리사업소 : 망원지구 : 333-4125
 관리초소 : 여의도지구 : 783-7716
 이촌지구 : 796-2236
 반포지구 : 591-5943
 잠실지구 : 417-1348
 광나루지구 : 485-3091
 잠원지구 : 534-3263

※ 기타 지역의 경우 市는 각 市·區廳 환경과 郡은 군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